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보은군

보 도 자 료

■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2년 4월 7일(목)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보은군 우드볼협회 클럽리그전 개최

자료문의 스포츠산업과 체육팀장 박은영(☎540-3381)
담당자 안준영(☎540-3383)

보은군은 2022년 보은군 우드볼협회 클럽리그전이 오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속리산 일원경기장(문장대 구장, 천왕봉구장, 숲길C구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보은군우드볼협회(회장 송석복)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관내 9개 클럽이 참여하며, 클럽당 6명이 출전해 총 36경기를 펼친다.

보은군은 아직 우리나라 대중에게 생소하던 '우드볼(Woodball)'을 속리산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급과 홍보에 나선 결과 2019년도에는 제11회 아시안컵 우드볼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 후로도 크고 작은 국내·외 경기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관내 9개 클럽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우드볼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어 회원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송석복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리그전을 개최하게 됐다" 며 "리그전을 통해 각 클럽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

고 더불어 지역 경제 및 우드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마늘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종합컨설팅 추진

- 마늘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앞장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장 김대현(☏540-5771)
담당자 송진현(☏540-5775)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지난 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충북농업기술원 마늘 전문가와 함께 대서마늘 및 홍산마늘 재배현장을 찾아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2022년 지역특화작목 마늘 종합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2022년 충북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 추진중으로 보은군은 마늘과 대추가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됐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보은군 마늘의 집중육성을 위해 6월까지 종합컨설팅을 추진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및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마늘 종합컨설팅이 마련됐다.

이날 종합컨설팅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권영석 연구관이 대서마늘 및 홍산마늘 재배농가를 방문해 겨울철 동해관리를 위해 부직포 덮기와 습해관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 시비관리 요령 등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컨설팅 중심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마늘 생산 확대를 위해 국내 육성품종인 홍산마늘과 마늘 농사의 기계화 기술 도입 등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며 “앞으로도 마늘 품질향상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보은군 속리산면, 봄맞이 '환경정화' 대청소

자료문의 속리산면 총무팀 구민선(☏540-4063)

보은군 속리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허길영) 전 직원은 지난 6일 면청사 소재지 일원의 대청소를 실시했다.

대청소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관광지인 속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고 주말에도 많은 차량이 몰려들고 있어 우리 면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해 추진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허길영 면장과 12명의 직원은 면 청사 인근에 쌓인 낙엽과 나뭇가지를 쓸어 담고, 인근 도로변과 버스정류장의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 그동안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아울러 도로변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허길영 속리산면장은 "다시 찾고 싶은 속리산으로 만들고자 직원들이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